

# 순천시, 시민 정신건강 맞춤형 서비스 추진

## ‘예방-치료-회복’ 관리체계 구축 질환 대상자에 年 최대 450만원 일상 생활 등 재활프로그램 운영 누구나 총 8회 전문 심리상담도

순천시가 시민정신건강을 위한 예방부터 치료, 회복 등 단계별 종합적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정신건강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대상자

별 맞춤형서비스를 추진한다.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시는 응급개입을 통해 즉시 대처하며 대상자에게는 치료·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치료비 등 연 최대 450만원을 지원한다.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월부터 매주 2회 미술요법, 일상생활훈련 등 재활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마음투자사업’을 통해 나이와 소득 기준 없이 시민 누구나 1인당 총 8회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한다.

극단적 선택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진행된다. 시는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 이·통장과 함께하는 ‘생명사랑’ 사업, ‘마음건강 편의점’ 운영 등을 통해 극단적 선택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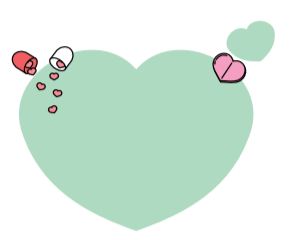
아동·청소년을 위한 극단적 선택 예방 생명지킴이 교육도 진행되며 찾아가는 정서행동 특성검사와 심층사정평가 후 필요시 전문의 상담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19~39세 청년층을 위한 순천청년마음건강센터는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해 회복을 지원하며, 정신건강 개선에 힘쓰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불안·우울 등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은 혼자 힘들이지 말

고 극단적 선택 예방상담(109), 정신건강상담(1577-0199), 정신건강복지센터(061-749-6695)와 같은 전문상담기관을 통해 꼭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 임산부·난임부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 858명 대상... 4월 4일까지 신청

순천시는 임산부·난임부부·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가정 총 858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양육가정이다. 해당 가정에는 연 48만원(자부담 9만6000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임산부 꾸러미는 오는 4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다. 온라인 신청은 3

월 중 열리는 임산부 자격검증시스템(에코이몰)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을 받는 임산부와 지난해 동일 자녀로 임산부 꾸러미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난임부부는 선착순 74명, 영유아 가정은 선착순 304명으로 지원된다. 난임부부 꾸러미는 난임 시술비를 신청할 때 순천시 보육아동과에서 함께 신청 가능하며 영유아 가정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청소년수련관 직원이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팜과 우주산업’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 “임신·출산 혜택 한눈에”... 출산장려지원 페이지 신설

순천시는 예비 부모와 출산 가정에 보다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임신·출산 관련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 누리집에 관련 내용을 게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웹페이지에서는 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과 혜택을 한 곳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설된 출생수당은 매월 20만원씩 지원되며 산후조리비용 지원도 기존 첫째 80만원, 둘째 100만원에서 모든 출생아 당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여성 1인당 25회까지 지원하던 것을 출산당 25회로 변경해 출산할 때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의 나이 제한을 없애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하며 난임 시술 중단 시에도 일부 비용을 보전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다.

시는 순천형 소아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해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 경증 어린이가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도 전문의의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3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내달 1일부터

순천시는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산림자원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연중운영)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겨울방학 특강 성료

### 관내 초·중·고 91명 대상

순천시가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관내 초·중·고등학생 9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관 겨울방학 특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특강은 청

소년들의 창의적 사고력 함양과 미래 역량 강화를 목표로, 과학, 기술, 예술, 체험 활동을 균형 있게 조합하여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시가 미래 혁신 산업으로 주목하는 스마트팜과 우주산업 관련 강좌를 통해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진로

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사고력보드게임과 k팝댄스 강좌를 통해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키우며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구성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성장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예정이다”며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 순천시-KAIST, 우주항공산업 상생발전 간담회

### 관·학 상호 협력 추진

순천시는 지난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우주항공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우주항공계열 최고권위 대학 KAIST 항공우주공학과 이정률 학과장을 포함한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총 12명 등 저명한 전문 교수진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항공우주공학과 이정률 학과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시의 우주항공산업 추진현황 공유, 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산업 협력 추진, 시의 우주항공산업 정책제언 순으로 진행됐다.

정책제언으로는 △우주항공·방산 입주 기업 인력의 정주지원 △관광, 교통 거점 주요시설의 산업 연계 활용 △기업의 자발적 입주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 조성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됐다.



순천시는 지난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한국과학기술원과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순천시 제공

이정률 학과장은 “발사체의 조립은 우주로 가는 길을 놓는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발사체 사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내 최대 규모 발사체 단조립장 유치를 시작으로 순천시가 국가 우주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유기적 협력으로 양 기관이 상호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우주항공·방산 관련 인프라 구축, 고도화된 기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R&D, 인력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시는 관·학의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산업생태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